

# 한전-금융권, 호남 해상풍력 육성 힘 모은다

### 광주·전북은행과 협약...금융 지원 확대 등 공동 대응 해상풍력사업 안정적 재원 조달·지역 상생 기반 마련

한국전력공사가 호남권 해상풍력 사업 추진을 위한 금융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한국전력은 최근 전북은행, 광주은행과 '호남권 해상풍력 사업 추진을 위한 금융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남 신안 해상풍력 사업과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 지원과 지역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각 기관은 사업 재원 조달과 금융 협력 확대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이 보유한 지역 금융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업 자금 조달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 중심의 금융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광주은행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내 국가 핵심사업인 신재생에너지 분야 해상

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 대표 공공기관인 한전과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광주은행은 지난 58년간 지역에 뿌리를 두고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해 온 만큼,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과정에서 안정적인 금융 지원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층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앞서 민간 RE100 시장 확대에 맞춰 태양광 대출 상품인 'RE100 SOLAR-LOAN'을 출시했으며 현대건설, LG에너지솔루션 등 유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호남권 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거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해상풍력은 초기 투자비가 막대한 대표적 인프라 사업으로 꼽힌다. 발전단지 조성 및 송전망 구축, 유지·운영 체계 마련 등에 장기간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안정적인 금융 조달 구조 확보가 사업 성



한국전력은 최근 전북은행, 광주은행과 '호남권 해상풍력 사업 추진을 위한 금융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한전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상풍력 사업 추진 기반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호남권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확대는 물론 지역 기업 참여와 일자리 창출 등 연관 산업 파급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해상풍력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금융 조달과 지역 협력 기반이 중요하다"며 "전북은행·광주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호남권 해상풍력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확대와 에너지 전환 정책 이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인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통해 광주은행과 한전이 협력할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마련됐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양 기관이 지역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을 모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현재 전북과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사업 경험과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향후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 진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mailto:aura@gwangnam.co.kr)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mailto:sdw0918@gwangnam.co.kr)

### 광양제철소, 고유가 대응 '에너지 패트롤' 추진 전력 다소비 설비 점검·에너지 낭비 요소 개선

포스코광양제철소가 고유가와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에너지 절감 활동 강화에 나섰다.

광양제철소는 전국적인 에너지 위기 대응에 동참하기 위해 조업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에너지 패트롤(Energy Patrol)'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최근 미-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와 에너지 비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이고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양제철소는 조업 현장을 방문해 에너지 설비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에너지 낭비 요소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공기압축기와 펌프 등 전력 소비가 많은 설비를 중심으로 가변속 장치 설치 여부와 노후 모터 교체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가변속 장치는 설비 부하

에 따라 모터 회전 속도를 제어해 불필요한 동력 소비를 줄이는 장치다.

조업 부서별로는 가스와 스틸, 용수 등의 일 단위 사용량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요 관리 포인트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상시 점검 체계도 구축했다.

이와 함께 고로와 제강, 냉연공정 등 주요 공정의 스틸 공급 배관과 관련 설비를 점검해 에너지 누설 여부와 보온 상태도 확인하고 있다.

특히 스틸 트랩 이상 작동 등 에너지 손실 요인을 발굴해 부품 교체 작업도 병행하고 있으며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개선 사항은 즉시 보완하거나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절감과 생산 효율 개선을 통해 글로벌 철강 시장 내 원가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광양·김귀진 기자 [kkjin@gwangnam.co.kr](mailto:kkjin@gwangnam.co.kr)

## 전남 직류산업 글로벌화 속도...산·학·연 협력 강화

### 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 미래 에너지산업 혁신 워크숍 재생에너지·DC 기반 전력망 논의...네트워크 구축도

전남지역이 재생에너지와 직류(DC) 기반 차세대 전력망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뜨고 있다.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직류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산학연 협력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은 7일 유담 마리아 호텔&리조트에서 전남 에너지 신산업 경쟁력 강화와 직류산업 글로벌 기반 조성을 위한 '전남 미래 에너지산업 혁신 및 직류산업 글로벌 기반 산학연 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전남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와 전남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사업 활성화를 목

표로 마련됐으며 산·학·연·관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정책과 기술, 산업 연계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에는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 을 비롯해 전남도 관계기관, 대학, 연구기관, 에너지기업 관계자 등 다수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남의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구조와 미래 전력망 변화 방향을 공유하고 직류산업 활성화 전략을 논의했다.

워크숍에서는 차세대 전력망 혁신기 시 구축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역할, MATLAB·Simulink 기반 교육, 차세대 전력망 및 직류 송배전 시스템 기술,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을 주제로 강연과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은 7일 전남 에너지 신산업 경쟁력 강화와 직류산업 글로벌 기반 조성을 위한 '전남 미래 에너지산업 혁신 및 직류산업 글로벌 기반 산학연 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다.

또 향후 AI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직류 기반 전력 시스템 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고 관련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성환 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장은 "전남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와 RISE 사업을 연계한 산학연 협력 모델을 통해 지역 산업 생태계를 고

도화하고 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와 인재 양성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은 앞으로도 지역 에너지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업 지원을 위한 기술 교류와 협력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mailto:sdw0918@gwangnam.co.kr)

## < 태양의 알로에 > 슈퍼겔 맥스

면역력 증진

장 건강

피부 건강

1일 면적 당당체  
300mg 함유

유니베라 남양알로에 상무점에서 유니베라 50주년을 맞아 건강을 함께 실천하고 나누는 '생활 밀착형 건강 캠페인' 멕시코 농장에서 키운 알로에 묘목을 나누어 드립니다.

2026년 05월 28일 오전11시부터 '선착순'

uniVera 유니베라 유니베라 남양알로에 상무점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7, 상무타워 7층 (상무역 지하철 4번출구)  
문의: 062.373.0058 대표이사 신영승